

세계 1등 상품 '대한민국 LPG자동차'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유수륜 회장

글로벌 경기침체와 더불어 고유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각국의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강화 등의 영향으로 고연비를 내고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변해 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 친환경자동차 경쟁 제1라운드는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가 중심이 된 하이브리드 진영의 승리로 사실상 끝이 났다. 이런 가운데 경쟁업체들은 하이브리드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울러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중심이 된 클린디젤자동차 진영도 디젤자동차의 기계적·환경적 성능을 크게 개선시켜 친환경자동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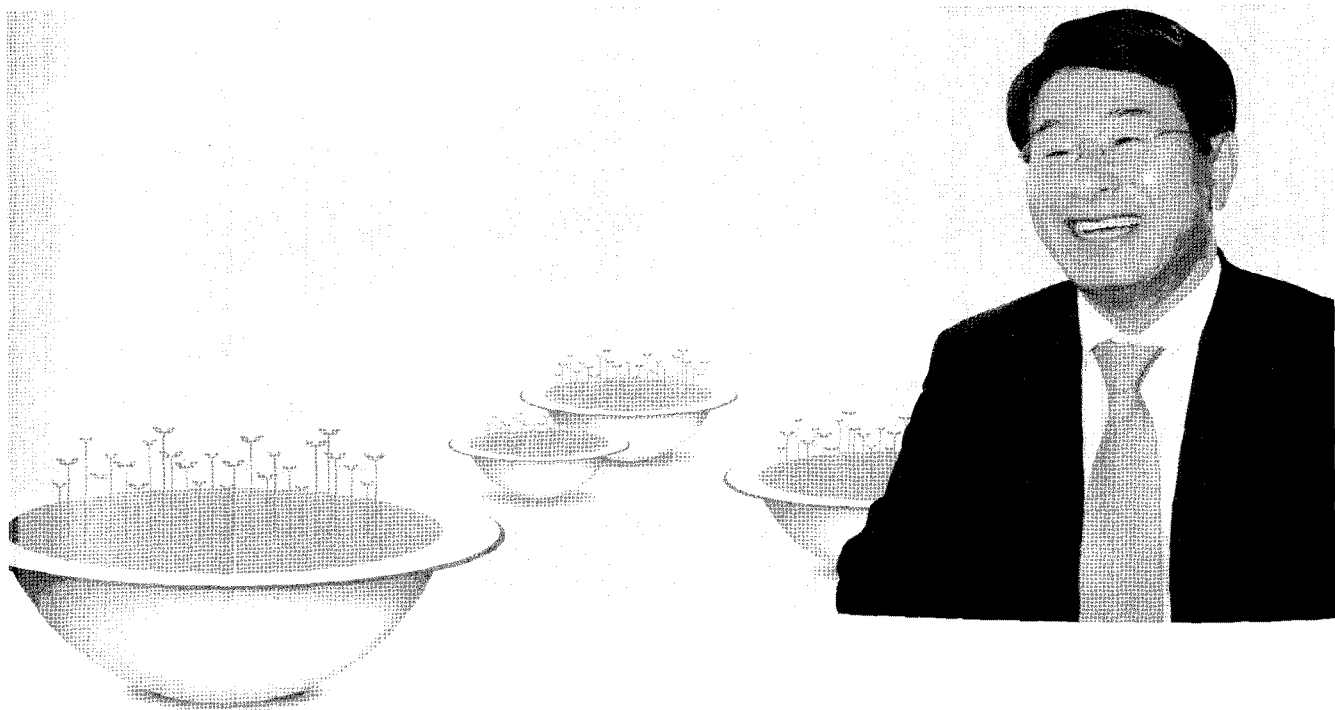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정유업계가 중심이 되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클린디젤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권도 가세해 클린디젤과 관련된 갖가지 지원책을 속속 쏟아내며 클린디젤차 보급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자동차관련 전문가들은 자동차업계는 향후 친환경자동차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수소연료나 전기자동차로 가기 전까지 하이브리드나 클린디젤 등과 같은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0년은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수송용 연료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이고 관련 인프라도 잘 갖춰진 연료는 아무래도 LPG가 아닌지 한번쯤 되 짚어보고 싶다.

우리나라는 LPG자동차 보급대수 240만대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LPG자동차 보유국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LPG자동차 관련 기술을 보유한 LPG자동차 선진국이다. 아울러 충전소도 전국적으로 1700여개소에 달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LPG자동차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LPI하이브리드시스템을 도입한 LPG하이브리드자동차(아반떼, 포르테) 양산을 시작하고 시판에 들어간 것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아반떼·포르테LPG하이브리드에 대해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차로 LPI하이브리드 주요부품(모터, 인버터, 배터리)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으로써 향후 가스차량의 기술개발에 대한 세계시장 주도권 선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LPG하이브리드자동차 국내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측의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가 오히려 수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LPG자동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지금이 바로 경쟁력을 갖춘 현실적인 친환경자동차의 확대보급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친환경자동차의 앞 자리에 LPG자동차가 서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경쟁우위가 입증된 '세계 1등 상품' LPG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LPG자동차에 대한 수출의 길이 활성화되면 관련 기술개발도 촉진돼 더욱 우수한 성능의 LPG자동차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LPG업계 종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세계 1등 상품, 대한민국 LPG자동차'의 자부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